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2. 1.(목)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이용우 (044-202-714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노동장관 면담

□ **한-우즈벡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갱신 체결, 고용노동협력 논의**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지지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일(목)** 17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방한 중인 **쿠사노브 노짐**(KUSANOV Nozim)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계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입국,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벡 근로자들에 대한 체류지원, 정해진 체류 기간 내 안전한 귀국**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06년 3월 양국 간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래 6번째 갱신 체결

특히,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 고용허가 규모도 대폭 확대**('22년 6만9천명 → '23년 11만명) 되는 만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동등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의 모범***을 보여왔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11.6월 UN) "UN 공공행정상 대상"
  ('17.4월 세계은행) "국가 간 노동이동을 도와 아태지역 경제성장을 이끄는 우수한 정책"
  ('21. ILO-IOM) "고용허가제 플랫폼은 대한민국과 출신국간의 채용 비용을 줄이고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

우즈베키스탄은 '06.3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6만 9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송출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현재는 약 8천 명의 우즈벡 근로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여섯 번째로 갱신하게 되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우리나라에서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또한 "**오늘 만남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12월 2일(금)에는 방한 중인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을 만나, 고용노동 분야 양국의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붙임】 면담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면담 개요

□ **(일시)** ’22. 12. 1.(목), 17:00 ~ 17:5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총 8명

◦ **(고용부)** 장관(이정식),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 **(우즈벡측)** 고용노동관계부 장관(쿠사노브 노짐, KUSANOV Nozim)
이주노동·귀국근로자통합지원국 국장, 해외노동이주청장,
주한우즈벡대사관 부대사, 주한우즈벡노동사무소 소장

□ **(주요 의제)**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 강화

□ **세부 진행순서** (※한-러 순차 통역)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7:00 ~ 17:10	10′	• 인사 말씀	
17:10 ~ 17:40	30′	• 양국 고용노동분야 협력 방안 논의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17:40 ~ 17:50	10′	• 마무리 말씀	기념 촬영